

「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」

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

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농업인께서는 병해충 방제에 노력하여 주시고, 관계기관에서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 정보는 <http://www.ares.gangwon.kr>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-

중점 방제 대상 병해충

식량작물 병해충

- ▶ 이삭도열병 : 거름기가 많은 논은 출수 전에 침투성수화제로 예방위주 방제
- ▶ 세균성벼알마름병 : 출수기에 강우와 고온지속 시 많이 발생되므로 출수기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삭마름병과 동시방제

채소류 병해충

- ▶ 고랭지 무·배추 무름병 : 7월 상순 이후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일부 고랭지 배추 재배지역에서 발생 ⇒ 적용약제로 7~10일 간격으로 방제
- ▶ 역병·탄저병 : 예방위주 적용약제로 방제 및 병든 과실 즉시 제거

과수 병해충

- ▶ 돌발해충 : 유·성충의 발생지역 및 밀도가 증가하고 있어 정밀 예찰 및 적극 방제가 필요하며 방제 시 농경지역과 산림지역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동시방제

“올바른 **농약사용**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합시다!”

주요 병해충 방제요령

식량작물 병해충

❖ 벼 세균성벼알마름병, 이삭도열병 (예보)

* 세균성벼알마름병은 주로 조생종과 중생종에서 출수기에 2일 이상 연속강우와 고온지속 시(23℃이상) 많이 발생하므로 일기예보 등을 참고하여 출수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삭 패기 직전에 전용약제를 선택하여 이삭마름병과 동시방제

* 이삭도열병은 중·만생종의 이삭 패는 시기에 비가 연속으로 오면 벼이삭 목에 병균이 쉽게 침입하여 병을 일으키므로 잎도열병이 발생 되었거나 거름기가 많은 논에서는 이삭도열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출수 전에 침투성수화제로 예방위주 방제



【 이삭도열병 병징 】

❖ 잎집무늬마름병, 키다리병 (예보)

* 잎집무늬마름병은 최근 온·습도가 높아 병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발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벼대 아래 부위를 잘 살펴서 병든포기율이 20% 이상인 논은 벼 포기 아래쪽까지 약액이 묻도록 살포

* 키다리병은 도내 본답 조사결과 전년보다 3% 정도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병원균이 꽃이 필 때 날아와 감염되어 다음 해에 종자전염 되므로 자가 채종 시에는 벼 출수 전 방제하여 포자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함



【 키다리병 병징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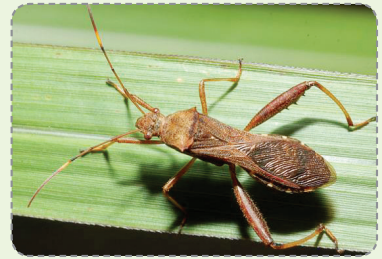
❖ 벼멸구· 흰등멸구· 흑명나방 (예보)

* 중국 내 밀도가 낮고 현재까지 국내 채집량도 평년보다 적어 발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비래시기가 평년보다 늦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포장 예찰 필요

❖ 콩 불마름병 · 점무늬병, 노린재류, 풍뎅이 (예보)

* 세균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마름병과 곰팡이에 의한 점무늬병은 비바람에 의하여 전염이 잘 되는데 최근 장마기간 비가 자주오고 고온이 지속되어 병 발생이 우려되니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

* 풍뎅이는 야산과 인접한 포장을 중심으로 발생이 많고 어린 잎을 갉아 먹으며, 노린재류는 다른 식물 등에서 증식한 후 콩이 꽃피는 시기에 비래하여 꼬투리에 피해를 주므로 유인포살 및 적용약제로 방제



【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】

채소류 병해충

❖ 고랭지 무 · 배추 무름병, 뿌리혹병 (예보)

* 무름병은 세균에 의한 병으로 온도가 높고 비가 자주올 때 많이 발생하며 땅과 맞닿은 부분의 잎자루와 줄기부터 발병해서 결국 속까지 무르고 부패하게 되는 병으로, 7월 상순 이후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태백, 삼척 등 일부 고랭지배추 재배 지역에서 발생 ⇒ 적용약제로 7~10일 간격으로 방제



【 무름병 병징 】

* 뿌리혹병은 뿌리에 크고 작은 혹이 생기면서 지상부가 말라죽게 되는 토양 전염병으로 사전에 방제를 철저히 하지 않은 밭에서 주로 발생하며 병 발생 후에는 방제가 어려우므로 병든 포기는 발견즉시 제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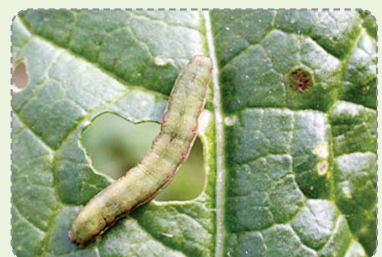
❖ 역병 · 탄저병, 담배나방 · 파밤나방 (예보)

* 역병은 비가 많이 온 지역에 발생될 우려가 높고 탄저병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병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병으로 병든 과실은 바로 제거하고, 비 오기 전후 약액이 과실까지 충분히 묻도록 방제

* 탄저병은 비가 잦으면 발생이 많은 병으로 병든 과실은 바로 제거하고, 비 오기 전후 약액이 과실까지 충분히 묻도록 방제

* 담배나방, 파밤나방은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높아지면 발생이 증가할 수 있음

⇒ 유충이 3령 이상이 되면 약제저항성이 커져 방제 효과가 떨어지므로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



【 파밤나방 유충 】

과수 병해충

❖ 꽃매미, 갈색날개매미충,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(주의보)

- * 꽃매미, 갈색날개매미충, 미국선녀벌레 등은 외래해충으로 작물의 잎이나 줄기를 흡즙하여 생육을 불량하게 하고 배설물(감로)은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림
- * 금년 도내 돌발해충 발생은 전년에 비하여 크게 확산되었으며 특히 미국선녀벌레는 발생지역 및 밀도가 크게 증가되어 피해가 우려되고 갈색날개매미충도 월동난 예찰 결과 발생이 확산되고 있어 필히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선녀벌레 등과 동시방제
- * 성충은 날개가 있어 농경지역과 산림지역을 왕래하므로 방제 시에는 가급적 농경·산림 지역을 관계기관 등과 협업하여 동시방제 실시



【꽃매미 성충】



【미국선녀벌레 성충】

❖ 갈색날개노린재, 썩덩나무노린재 (예보)

- * 성충으로 월동하다가 4~5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7~8월에 과실을 집중적으로 가해 ⇒ 심식나방류 등과 동시에 방제가 가능한 적용약제를 2~3회 살포

8월 기상전망 (강원지방기상청)



<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>

지역	주	1주 (07.17.~07.23.)	2주 (07.24.~07.30.)	3주 (07.31.~08.06.)	4주 (08.07.~08.13.)
영서	평균기온	평년(24.4℃)과 비슷하거나 높음	평년(23.1℃)보다 높음	평년(22.4℃)과 비슷하거나 높음	평년(20.9℃)보다 높음
	강수량	평년(56.5mm)과 비슷	평년(77.2mm)과 비슷	평년(74.7mm)과 비슷	평년(38.5mm)과 비슷
영동	평균기온	평년(24.1℃)과 비슷	평년(23.2℃)보다 높음	평년(22.8℃)과 비슷하거나 높음	평년(21.4℃)보다 높음
	강수량	평년(64.6mm)과 비슷	평년(77.6mm)과 비슷	평년(103.3mm)과 비슷	평년(52.7mm)과 비슷하거나 많음

※ 날씨 예보는 전화 131번 (<http://gangwon.kma.go.kr>)